

염소가 말하기를

희와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살았다. 별볼일 없는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서는 곧바로 일을 구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을 해주는 일이었다. 통근 시간도 없고, 하는 만큼 벌고 하지 않는 만큼 벌지 않는다는 점이 공평해서 좋았다.

언니와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어릴 땐 친했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달까. 하지만 언니가 죽은 날에는 목이 쉬어라 울었다. 왜 그렇게까지 울었을까. 언니가 삼 년 넘게 암과 싸웠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언니가 입원했을 때부터 의사는 이번이 고비일 거라는 말을 지겹도록 자주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가던 날도 있었다. 몇 번의 싸움에서 이긴 언니는 은퇴를 앞둔 선수처럼 지쳐 갔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숨이 붙어있던 암은 다시 일어났고 언니는 또 다시 그것과 주먹다짐을 해야했다. 상대가 누구든 흠씬 두들겨 패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이긴 거라는 걸, 희도 나도 그때 배웠다.

의사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언니가 할머니를 제치고 내내 집에서 가장을 맡아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온 나에게,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곤 구질구질한 것밖에 없다는 이유로 언니를 기피했던 나에게 별을 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또 그것대로 적응해버려 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이 와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수업을 해야한다고 병원에 가지 않은 날도 생겼다. 그제서야 언니는 안심했다는 듯 죽었다. 나도 희도 없이 혼자서. 유독 추웠던 겨울에 걸맞는 외로운 죽음이었다.

이후에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다. 할머니 장례식에서 봤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 형부를 만나긴 했지만, 형부의 아내가 같이 왔으므로 인사만 받고 보내버렸다. 장례는 육개장을 깨작거리고 어색하게 웃다보니 싱겁게 끝났다. 언니를 불태우지 않고 할머니 옆에 묻기로 했기 때문에 언니는 대형버스에 실렸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 옆에서 무언가가 픽, 하고 내 쪽으로 무너졌다. 누군지 확인해보니 내 조카였다. 나는 언니를 뒤로 하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 가야 했다.

너무 놀란 바람에 기절한 게라고 의사가 말했다. 아직 어리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무심하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의사의 말대로 희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제서야 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그제서야 희의 눈에 내가 들어갔던 건지도 모른다. 희는 작고 조용한 여자아이였다.

내가 살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희는 곧바로 중학교에 입학했다. 자주 결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희는 모범생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근처 공공 도서관에 가거나 이따금씩 피씨방에 다녀오는 그저 그런 중학생이었다. 그건 희가 말해줘서 알아챈 것이 아니라 풍겨오는 냄새 때문에 알게 된 부분이었다. 도서관에 갔다온 날에는 정돈된 나무 냄새가 났고, 피씨방에 갔다온 날에는 매캐한 담배 냄새가 풍겼다.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종류의 감각이라서, 냄새를 맡게 될

때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부모가 된 기분이 들었다. 종일 같은 곳에 있으면 그 공간의 냄새가 났다고, 힌트도 줘 보았으나 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일 있었던 곳의 냄새를 집에 퍼뜨렸다.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너무 느리게 가는 바람에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여름이 되었고, 가을이 되었고 다시 언니가 죽었던 겨울이 되었다. 다시 또 봄은 왔고 꽃들은 떨어졌다. 그러면 후덥지근한 날씨가 혹, 느껴졌고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얇은 옷을 꺼냈다. 우리는 여러 계절들 덕분에인지, 또 그런대로 지금의 삶을 적응해 나갔지만 그동안 나와 희가 가까워진 건 아니었다.

나는 언제든 희가 떠나겠다고 말하면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희에게 전하지는 않았다.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는 말로 알아들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희의 담임과 전화를 해야 할 때 외에는 희를 키우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다. 담임과의 통화가 난감한 이유는 내가 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희를 키워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희와 공생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나는 희 때문에, 희는 나 때문에 더 나쁜 쪽으로 갈 수 없었다. 어쩌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나쁜 생각을 마주 보고 토로할 정도로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 정도의 사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염소를 처음 봤을 때, 고민없이 희구나, 생각했다. 강아지나 고양이였다면 달랐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아니면 기린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이었더라면, 곧바로 신고해버렸을텐데. 다름아닌 염소라서, 그것도 희처럼 새카만 털을 가진 흑염소라서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놀라긴 했는데 그런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염소는 다른 곳도 아니고 희 방에 덩그러니 서서 희가 키우던 월계수 잎을 뜯어 먹고 있었다.

나는 다 마른 희의 옷가지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정리되지 않은 침구 사이에 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열리지 않은 폰을 만져보다 염소, 아니 희가 자기 옷을 입으려고 한 건지 옷에 입을 가져다대길래 황급히 주워들어 서랍에 우겨넣어 버렸다. 언제 왔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고 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는 없어 곧바로 저녁은 먹고 온 거야? 하고 물었다. 그렇게 물은 것은 희가 가끔씩 피씨방에서 짜파게티나 김치볶음밥을 먹고 오기 때문이었으나 역시 대답은 듣지 못했다. 작년에나 왔어야 하는 사춘기가 이제야 와서 나는 다소 난감했다. 다시 뒤로 돌아 문을 닫으려 하니 희가 몸을 들썩이며 발을 굴렀다. 가둔다고 생각하는 걸까. 희가 지나다닐 수 있을만한 정도의 틈을 열어두고 나왔다. 마른 수건을 화장실 서랍장에 놓으며 어제까지의 희를 돌이켜보았다.

어제 저녁에는 희와 함께 깻잎과 상추를 버무린 비빔밥을 먹었다. 나는 더위를 날

리기 위해 손이 시려워 못 견딜 때까지 설거지를 했다. 희와 산책을 나가도 좋았겠지만, 나는 언니가 죽은 이후로 더 밖을 나가지 않았다. 내 세상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 접힌 종이처럼 좁아졌는데, 언니가 죽어 버리는 바람에 한 번 더 접혀 버린 것이다. 에이포용지에서 에이파이프용지로. 거기서 또 에이식스용지로.

여름은 그런 내 세상을 변명하기 좋은 계절이었다. 밖은 너무 더웠으니까. 물론 희는 나와는 달리 방학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읽거나 피씨방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덥지도 않은가. 밖을 나갔다 돌아온 희의 얼굴에는 땀이 گرغرغر 땀혀 있었다. 희에게도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동인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희는 쉬지 않고 밖을 나갔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다르게 나는 에어컨 바람이나 쐬며 창밖을 물끄러미 보며 쉬는 게 좋았다. 오래 혼자 살았기 때문인지 일할 때 아니면 혼잣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근처에 있던 희가 내 말에 토를 달 듯 답했다. 그러면 내 말들은 허공에 던져져 부유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었다. 이를테면 내가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면 희는 별로, 하고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 채 불쑥 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뭐야, 하면서 살짝 미간을 찌푸리곤 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땡땡-하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간만에 들어보는 벨소리였다. 택배나 음식을 시킬 때 문을 푹푹, 두드려 달라고 현관문에 써 붙여놓았는데. 나는 얼떨떨하게 현관쪽을 바라보다가 한 번 더 울리는 벨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는 정돈되지 않은 머리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옆집 사는 사람이었다. 남자는 자주 집을 비우면서 들어오는 시간까지 불규칙한 편이었고,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는 거의 집에 없었다. 그렇지만 비가 올 때는 주로 집에 있었다. 이런 사실은 방음이 잘 안되는 집 구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지만 가벽을 대충 세운 것만 같은 방음이 이웃 간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었다.

저, 아무 일도 없으신가요.

남자는 대뜸 물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대답하자 남자는 조금 뜸을 들었다.

소리가 나세요.

무슨 소리요?

남자는 말을 고르는 듯 잠깐 골똘하더니 이내 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나도 남자도 말이 없었지만 문을 닫을라치면 남자의 입이 무슨 말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열락말락 움직이는 바람에 어중간한 상태로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복도등이 예고없이 꺼졌다. 그럼 닫을게요. 나는 사뭇 단호하게 말했지만 문을 닫기 전까지 시간을 좀 주었다. 남자는 알겠다는 듯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나는 문을 닫고 안전 고리까지 잠갔다.

희가 언제 울었지? 나는 종일 집에 있었는데. 옆집 남자가 어떤 소리든 들은 게 분명했는데도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길 바라야 했다. 우리 빌라는 반려동물이 금지였다. 낯선 소리에 놀란 희는 어디론가 숨은 듯 줄 알았으나 희

방에서 월계수 잎을 뜯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월계수 잎을 보다 희를 들쳐 업고 거실로 나왔다. 희가 메에-하고 울어 나는 황급히 내 방으로 달려갔다.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방문도 모두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희를 달랬다.

희를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다. 머리가 내 허리만큼은 왔는데 또 다 컸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이마에 있는 뿔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듯 보였다. 먹을 때 빼고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는 게 희와 다름이 없었다. 희를 달래기 위해 이불을 걷고 나와 냉장고에 있던 상추나 깻잎이나 채겨와 먹였다. 희는 입을 오물 거리다 내게 뿔을 비벼댔다. 그리고는 메에-하고 울었다. 한 번 울 줄 알았으나 희는 계속 울어댔고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이불 안으로 들어와 희를 쓰다듬어 주었다. 좀 진정할까 싶었는데 그 털을 만지고 있으니 진정이 되는 건 오히려 나였고 희는 내 손길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결국 스피커를 틀어 소리를 최대한 키웠다.

왜그래? 몇 번이고 되물어보아도 희는 대답없이 울기만 했다. 희는 쉽게 우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나는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팔을 감아 꼭 안아주면 불편한지 발버둥을 쳐서 금방 다시 풀어주어야 했다. 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뿌리치더니 내 쪽으로 다 자라지 않은 뿔을 치켜 세우고 들이 밀었다. 그다지 아프지도 않아서 나는 몇 번 맞아주었다. 그러다 희의 작은 뿔과 튀어나온 내 뼈가 부딪혔고 나는 눈물을 질끔 흘렸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희에게 덤벼들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희와 엉겨붙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이 차서 희를 놓아주고 거실로 나와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데 집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깜짝 놀라 현관문으로 달려가 집앞에 혹시 누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안전 고리 때문에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보안이 뚫인 것이었다.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바꾼 후 다시 거실로 돌아가니 희가 내가 흘린 물을 핥아 먹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 말이 안 통하니까 표정으로라도 알려줘. 말하고 나서 희의 표정을 살펴보았는데 아무 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희의 이마에 달린 뿌리의 색이 연갈색이라는 것 말고는. 나는 그런 희의 머리를 뿌리 사이사이로 쓰다듬었다.

근데 희, 왜 염소가 된 거야.

한 번 변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아니면 이따금씩 돌아와?

물을 마시는 일에 몰두한 희 옆에 앉아 슬쩍 말을 걸어보았다. 다른 방식으로든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희를 지켜보았다. 나는 동물과는 연이 없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기억을 헤집어 보면 동물을 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했다. 아주 어릴 때, 내가 고작 희만할 때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어디선가 갑자기 개를 한 마리 데려왔다. 족보를 알 수 없는 개를 집 앞에 묶어놓고 남은 밥을 주었다. 다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어린 것도 아닌, 한 번도 빗지 않은 것 같지만 부드러운 털. 거뭇거뭇한 눈물 자국을 한 그 개는 진돗개와 시바견 그 언저리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외향이었다. 시골에서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그런 개. 개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왜 데려온 것이냐 물었을 때 할머니는 여자 셋이 사는 집에 개 한 마리쯤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 개는 낮을 가리는지 며칠은 조용하다가 어느날부터 나나 언니가 오면 왈왈 짖었고 낮선 사람이 오면 킁킁 짖었다.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을 모두 먹었다. 어디선가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개가 먹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온 언니가 사료를 사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할머니는 굳건했다. 그 이후로 언니가 자기 용돈을 모아 사료를 사왔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자주는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날에는 화장실까지 데려와 개를 씻겼다. 왜 그렇게 까지 해? 내가 물었을 때 언니는 당연하잖아, 대답했는데 나는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언니가 애지중지 아꼈던 그 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그것이 마법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 개가 이제는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라고. 아주 정돈된 모양으로 잘려나간 목줄을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언니는 그 개를 가족으로 여겼음에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 나는 그 개가 이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집을 떠났을까 가끔 생각해보곤 했다. 왜 이름을 정해주지 않냐고 했더니 언니는 그전에 먼저 개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개 앞에서 죽은 척하기, 였다. 언니는 진짜 죽은 척을 하기 위해 흙바닥에 볼을 붙이고 꿈쩍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렸는데 개의 숨소리나 타닥타닥, 하는 발걸음만 들렸다. 언니는 눈을 꼭 감고 누워 반응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집에 돌아 온 할머니가 깨워 일 어났을 때 개는 그릇에 얼굴을 박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다고. 언니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개 옆에서 죽은 척을 하다 자주 잠들었다.

어느새 어둑어둑 해져 켜진 전조등 빛이 창을 타고 들어와 들어와 희를 비추었다. 희는 새카만 털을 작게 흔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가 변해버렸다고 해서 우왕좌왕하는 시시한 보호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희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염소가 될 수도 있지. 그 말만 반복하면서. 그러다 희 앞에서 어렸을 때 개를 키웠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버렸고, 편한 자세로 몇 번 고쳐 자리를 잡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이른 아침부터는 분주하게 수업을 준비했다. 수업은 한 번 시작하면 여섯 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폭신한 쿠션과 몇 개의 요깃거리와 음료를 가지고 와 올려두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앞에 있는 풀이란 풀은 다 뜯어와 물과 함께 희 방에 넣어놓았더니 희는 울지 않았다. 웬지 당분간은 울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희의 굵 때문에 또각또각, 발굽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빠른 배송으로 최대한 큰 카페트를 주문했다. 수업이 시작하기 오 분전 다시 한 번 벨이 울렸다. 땡동-

옆집입니다.

나는 안전 고리를 건 채로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일그러진 눈썹을 보니 꽤 당혹스러운 상태인 듯했다. 손에는 썰은 수박이 올려진 접시가 들려 있었다.

실은 저랑 살던 동물이 있었는데요.

주저하는 남자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멀리까지 보면서 말했다.

그게 문을 연 사이에 나가버린 것 같아요.

우리 빌라는 반려 동물이 금지인 걸 모르시나요.

나는 말하면서 양심이 너무 찢린 나머지 화가 났다. 내가 염소인 희를 집으로 들인 게 아니라 희가 염소로 변해버린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때 내 방에서부터 또각또각, 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이 키우던 게 우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 모든 걸 다 걸고,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을 닫기 위해 손잡이를 힘을 주어 잡았다. 그 순간 남자가 외쳤다.

윤성아, 이윤성!

남자는 여전히 내가 아닌 나를 경유해 내 뒤를 보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현관으로 온 희가 서 있었다.

저희 윤성이를 돌려주세요.

남자는 완곡히 부탁했다. 내가 무슨 소리냐고, 이건 엄연히 내 조카라고 말하려던 차에 희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를 지나쳐 문밖으로 얼굴을 끼워넣어 남자의 손에 들린 수박에 코를 박았다. 짐짓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 된 남자는 손을 뻗어 희를 쓰다듬었다. 남자는 이제는 납치범을 대하는 것처럼 날선 목소리로 내게 문을 열어달라 말했다.

수박을 입에 물고 나서야 희는 뒤로 물러났다. 문을 닫고 수박을 먹는데에 정신이 팔린 희를 붙잡고 흔들었다.

희, 무슨 말이라도 해. 어떻게 된 거야.

희는 대답이 없었고 남자는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지 않고 쿵쿵 두드렸다. 나는 이미 늦은 수업을 모두 캔슬하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희를 포기하는 건 아니었다. 제 발로 우리집을 떠날 때까지만 희를 맡아두기로 마음 먹기는 했어도 이런 방식으로선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놓으세요, 잠시만요.

좁은 복도에서 희를 두고 남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윗층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열린 자기 집문을 열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집 문을 열었는데 희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나도 열린 남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현관문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와 다르게 희는 뽀송해 보이는 카페트 사이를 걷다가 이제야 집에 왔다는 듯 태평하게 자리를 잡고 누웠다. 남자는 엄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제 조카예요, 분명합니다.

윤성이가요? 애는 염소잖아요. 염소가 어떻게 그쪽 조카입니까.

남자의 말에 나는 주눅이 들었다. 나는 지지 않기 위해 그럼 왜 염소의 이름을 이윤성이라고 지었는지 물었다. 혼자 살아 대화할 사람이 없어 사람 같은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남자는 답했다. 꽤 그럴 법한 대답이었다. 왜 하필 이윤성이나 물으니 최대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찾다가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했다. 들어본 적있는 이름이면 염소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릴까봐서. 나는 고집쟁이가 되어 아무튼 저 염소는 제 조카인 희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어쩌다가 희가 염소로 변해버린 거라고.

어쩌다가요?

남자는 내가 당연히 생각했어야 할 질문을 물었는데 나는 정곡이 찔려 마음이 아팠다. 남자는 나를 물끄러미 보다 그냥 들어오라고 말했다. 나는 신발장 앞에 걸린 신발 주걱을 손에 쥐고 신발을 벗었다.

원래부터 혼자 살았어요?

내 말에 남자는 희 옆에 그릇을 놓고 우유를 부어주며 그게 언제부턴데요. 대답했다. 그러니까 시초, 기원, 음. 내가 우물쭈물하자 그럼 원래부터가 맞다고 했다. 나는 당황해 부모님이나 형제는 없는지 물어본 거였다고 말을 고쳤지만 그거나 그거나였다. 그꼴이 마치 희의 답임과 다를 바 없게 느껴져 창피했다. 뱉어버린 내 말을 줍지 못하고 있을 때 남자는 같은 대답을 했다.

그나저나 괜찮은 거예요?

남자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나에게 물었다. 조카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였다. 아냐, 집을 나간 건가. 나는 미련을 놓지 못하고 염소가 이윤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남자는 식탁 위에 자르다 남은 수박을 하나 들고 카페트 위에 누워 있는 희 옆에 앉았다. 그 둘을 보고 있자니 울컥하고 마음 속에서 뭔가 치솟아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서둘러 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남자의 집을 나왔다.

예상외로 밖은 시원했다. 해질녘이라 노란 빛을 받은 풀들이 싱그럽게 흔들렸다. 적막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았다. 어디부터 가야되지.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어디로 가야할지 갈팡질팡했다. 문득 진짜 희를 찾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찾는다고 해도 희가 내게 이를 동안은 뭐했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희가 항상 간다는 도서관 쪽으로 향했다. 지도에 올록 도서관이라고 치니 경로는 금방 나왔다. 도서관 이름도 희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책 커버에 붙여진 스티커를 보고 알아낸 거였다. 버스를 통해 도착하는 게 가장 빨랐지만 가까운 정류장에 오기까지 십 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져 발걸음을 빨리하다 이내 달렸다. 그렇게 도착한 도서관은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다.

젊은 직원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 감식관처럼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았지만 희는 없었다. 내가 희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잠시 검색해보더니 미묘하게 얼굴이 굳어졌다. 그 학생은 책을 너무 자주 연체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거 책 좀 늦게 반납할 수도 있죠, 라고 말해버렸고 직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사과했다.

희는 책을 한 번 빌려서 한 달 넘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도서관은 매일같이 오는 학생이었다. 직원은 얼굴을 기억해 집에 가려는 희를 잡고 책이 한 달 넘게 연체된 사실을 일러주었다.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은 수는 아니라서 직원은 그때까지도 희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직원이 연체자를 기억해 주의를 주면 대개 창피해하거나 송구스러운 모션을 취했다. 반납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 게으름이 나아지지는 않지만, 몇 번이고 말하다보면 나아질까 해서요. 직원은 푸념하듯 말했다. 희도 대답은 여느 연체자들처럼 알겠다고 곧 가져오겠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다른 점은, 반갑게 웃었다고 했다. 마치 오랜만에 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직원은 희의 반가움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데, 전혀 반가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서관 로비에서 학생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거나 훈계를 하는 것도 웃긴 모양새라 희를 그냥 놓아준 게 몇 번 되었다고 직원은 말했다. 그래도 아직 어린데 내버려두면 그렇게 커버린다고. 젊은 직원 옆에 서 있던 나이 든 직원이 내게 말했다. 나는 한 번 혼을 내주겠다고, 다신 그러지 않도록 흠씬 두들겨 패겠다고 말한 후 도서관을 나왔다. 그렇게 큰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는 희가 한 달이나 연체 했다면 동화책 하나를 내 이름으로 빌려 들고 나왔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별 게 아니었다. 씨앗 하나가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까지는 바람의 도움도, 햇살의 도움도, 바람의 도움도, 나뭇잎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바람이 사람처럼 방긋 방긋 웃고, 나뭇잎도 생글생글 미소 짓는 그림들만 가득 보다가 나는 책을 닫았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직원을 잡아 세웠다.

다음부터는 연체를 하지 않아도 개한테 아는 척 해주세요. 오늘 또 왔니, 이렇게요. 네?

그럼 개가 사서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요.

희가 다니는 피씨방을 몰라 동네에 있는 피씨방을 다 돌았다. 피씨방은 주로 건물 꼭대기에 있어 구분이 어려운 바람에 갔던 피씨방을 또 들르기도 했다.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나, 아니면 나몰래 애인이라도 생겼나.

희가 자주 온다는 피씨방을 찾았으나 희는 없었다. 어떻게 기억하냐 물으니 희는 피씨방 86번 자리에 자주 앉는다고 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기억하고 있다고. 알바생이 말했다. 자리가 없으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앉는다고. 그럼 어디간 걸까. 생각하다가 엄마가 된 것처럼 화가 났다. 흠씬 두들겨 패야지, 싶다가도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패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싸워야 한다는 걸 떠올렸다. 나는 희를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팽 수 없었다. 피씨방 직원에게 86번 애가 나타나

면 연락 달라고 번호를 적어주고 피씨방을 나왔다. 문득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말을 골라보았다. 돌아오라고 말할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까.

휘청거리며 겨우 집에 다시 돌아온 나에게 말을 걸어온 건 옆집 남자였다. 집앞에서 뭘하는 건지 물어보기도 전에 남자는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 윤성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남자를 따라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니 멀쩡하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염소 한 마리가 보였다. 남자는 당황하더니 염소가 쓰러져 있었다고, 돌연 몸이 돌처럼 굳어서 그대로 뒤집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한 거라고.

남자는 배달을 나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주로 저녁에 배달을 나가는데, 새벽 배송이 일거리가 많고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헤어진 여자친구는 낮에 일을 하다가 만났었다. 헤어지고 나서는 여자친구네 집 근처로는 배달 일을 나가지 않았는데 어쩌다 마주치는 일을 상상하다 배달 실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내가 물으니 아주 오래 전예요, 남자가 대답했다. 남자는 기원, 태초, 뭐 그런 단어의 뜻을 알게 될 즈음부터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없어지니 급격하게 외로워졌다. 개를 키우려고 알아보더니 개는 너무 짝이 금방 들킬 것 같았다. 고양이는 자꾸 숨어서 제가 더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염소가 살던 시골이나 여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으나 염소는 종종 집을 나갔다. 방충망을 뚫고 나가기도 했고,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때를 노려 뛰쳐나가기도 했다. 갇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고 거의 매일 산책을 시켰어요. 시간이 될 때요. 그러나 그건 염소가 언제 밖을 나가고 싶은지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애지중지 키웠다고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희가 막 우리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였다. 학교 전학 수속을 밟고 잘 적응을 한 건지 별 말이 없었다. 그때는 집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기도 전에 희가 집으로 돌아왔다.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다녀도 된다고 말할 즈음에 희가 내게 그런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남자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희에게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염소가 쓰러진 건 정말 모르는 일이었다. 남자의 방에 태평하게 앉아 있는 염소를 몇 번 쓰다듬었다. 남자는 또 쓰러지면 정말 문제 삼겠다며 염포를 놓았다.

남자의 집을 나오니 웬 여자애가 집앞에 쭈그려 앉아 무릎을 감싸고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희였다. 집을 나간 건 너면서 왜 울고 있어. 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희가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털었다. 슬픈 얼굴일 줄 알았는데 화난 얼굴이었다. 미간을 좁히고 나를 빤히 바라보던 희가 말했다.

난 집을 나간 적이 없어. 이모가 날 버렸잖아.

희는 피씨방에서 김치볶음밥을 먹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곧장 집으로 가

려고 했지만 날씨가 좋아 해질녘 구름이 선명해 언덕 위에서 노을을 구경하며 걷고 걷다가 집과 거리가 멀어져 예상 시간보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다. 평소에는 도서관에서 아무 책을 골라 읽거나, 피씨방에서 웹서핑이나 게임을 하다가 여섯 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도서관에 있었고, 아니면 학교가 끝나면 피씨방에 들렀다. 책을 읽을 때나 인터넷을 할 때는 생각이 멈춰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싶다고, 희는 자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생각이었고 멈출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여니 안전 장치가 걸려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나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 노랫소리만 새어나오고 반응이 없었다고, 그때까지는 희도 우연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밖을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는데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다고 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당황하면서 반복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니 도어락이 꺼져버렸다. 그제서야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눈치챘다고.

나는 그런 열도탕토 없는 희에 생각이 어이가 없었다. 이때가 희를 혼낼 순간이다 싶어 화를 내려고 했다. 그게 말이 되니, 하고. 그러나 비밀번호를 바꾼 일을 변명하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설명할 수가 없었다. 네가 염소로 변해버린 줄 알았지 뭐야, 라고 더 열도탕토 없는 이야기를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음.

주저하던 나는 그냥 사과하기로 했다. 미안해. 너를 우리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미안해. 하룻밤이나 안 들어왔는데 찾지 않아서 미안해. 잔뜩 떡이 진 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남자가 집에서 나왔다. 염소도 함께였다. 나는 움찔거리는 희의 손을 무심코 잡았다.

옆집 아저씨가 키우는 애래.

희는 참내, 뭘 염소를, 말했지만 그게 다였다. 희도 나도 그것보다는 어색하게 각지를 낀 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지는 않고 더 꼭 잡았다. 희의 손이 너무 말랑해서 염소를 쓰다듬을 때보다 더 놀랐다. 이렇게 부드럽고 폭신할 수가 있나, 싶어서. 남자는 윤성이랑 산책에 나서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같이 가자고 권했다. 쓸쓸해서는 아니고 윤성이가 또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임을 나는 금방 눈치챘지만, 희가 핸드폰으로 연신 귀여워-를 외치며 윤성을 짊어대고 있어서 같이 가기로 했다.

희는 여태까지 책을 많이 읽어선지 아는 것도 많았다. 염소가 기절한 건 깜짝 놀라서 그런 거라고 했다. 왁, 하고 놀래키니 염소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났다. 남자는 윤성을 아직도 잘 모른다면 부끄러워했다. 뒷산에 오르는 건 처음이었는데 희는 자주 온다고 했다. 염소도 마찬가지로 풀쭉 뛰며 신나게 산을 올라갔다. 우리도 따라 산을 올라가다 숨이 차오를즈음 멈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염소는 질리지도 않는지 풀을 뜯어먹다가 아래를 내려다보기를 반복했다. 염소 근처를 맴돌던 남자는 우리 옆으로 걸어와 털썩 앉았다. 허망해보이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기분이 좋아보였다. 희가 내 어깨에 기대어 가쁜 숨을 내쉬다 조용해져 살펴보니 자고 있었다. 나는 햇빛이 센 정오에 열을 받으며 앉아 있으니 좀 힘들단 생각을

했다. 남자는 이제는 철푸덕 잔디밭에 누워버렸다. 은성이가 멀리가면 말해주세요, 하더니 눈을 감았다.

나는 잠든 둘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려 염소를 지켜봤다. 멀리 사라지지 않도록, 남자 옆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염소는 먹을만큼 다 먹은 건지 가만히 우리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조금씩 우리쪽으로 걸어오다 메에-하고 길게 울었다. 그런 염소의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알겠어, 대답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희가 잠깐이지만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무슨 꿈이었는데?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희가 휘청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며 말했다. 그럼 키가 더 크겠네. 내가 말했다. 그러자 앞장 서 걷던 남자가 대답했다. 저도요.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때 염소가 내쪽으로 가까이 붙으며 은근히 친한 척을 했다. 나는 염소가 또 놀라지 않도록 가만가만 걸어 내려갔다. 산 아래에 다 내려오니 이제 해가지기 시작하고 있었다.